

사노피-엠디스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공동추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공동 추진
- * 사노피 임직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피드백 반영해 서비스 고도화 및 접근성 향상 계획
- * 향후 론칭 될 사노피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연계 및 공동영업 등 협력 확대 예정



대한민국 서울, 2022년 7월 4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6월 30일,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 기업인 엠디스퀘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노피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엠디스퀘어는 프리미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성질환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향후 론칭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의 연계 및 양사 제품의 공동 프로모션 등으로 협력 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엠디스퀘어는 사노피 임직원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건강관리 서비스인 엠디케어를 제공한다. 엠디케어는 고령의 만성질환자 질환관리를 돕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로 전문 의료진을 통해 주기적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사노피 임직원들이 엠디케어를 직접 체험 한 후 전달하는 의견과 후기들은 서비스 고도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영될 예정이다.

배경은 대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사노피 한국법인 Country Lead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및 데이터를 접목한 과학적 혁신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회사의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2022 년은 한국에서 다양한 혁신적 협업 기회를 모색하여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수환 대표

엠디스퀘어 대표이사

“엠디톡(MDtalk)을 기반으로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접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엠디케어의 프리미엄 건강관리 서비스가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노피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비롯하여 혁신적인 치료제, 희귀 질환 치료제 및 만성 질환 치료제 등을 제공해 오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디지털 및 데이터를 접목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엠디스퀘어는 2016 년 설립되어 비대면 진료플랫폼인 엠디톡을 운영중인 회사로 IoT, AI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 데이터 기반 실시간 건강관리, 전문 의료진을 통한 주기적 건강관리 및 건강상담 등 비대면 진료와 연계된 고령 친화적 프리미엄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참여하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주요 과제인 '고령 친화적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 개발'에 선정된 바 있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